

네델란드 Platform Aarde Boer Consument 지에 게재된 서평 (Platform Earth Farmer Consumer, Dutch Platform for Food Sovereignty, <http://aardeboerconsument.nl/wie-zijn-wij/visie>), September 15, 2014

서평: '식량전쟁 2030'

글쓴이: 마를리스 판 마르세베인(Marlies van Maarseveen)

이철호교수는 은퇴한 한국의 식품공학 교수이다. 그의 저서 '식량전쟁 2030'에서 그는 기후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래에 극적으로 나타날 식량분배와 먹이사슬 내의 갈등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시하면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변혁과 국제사회의 음모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소설이면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식량수요, 식량생산, 식량사슬, GMO, 식량수출 제한, 유가의 영향 등이 논의된다.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한 최종결론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설의 형식으로 지구의 종말적 상황을 설정하고 비정통적(unorthodox)인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IPCC AR5(기후연구 2013)전에 출간된 이 책이 현실성을 잃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생명공학과 새로운 품종에 관한 연구 결과가 강대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국익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쾌하게 기술된 가상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세상의 "게임"은 모든 측면에서 농업생산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고, 현재는 과잉생산을 하는 선도자로서 미국과 서유럽이 가장 좋은 패를 갖고 있다: 식량규칙. **식량을 지배하는 자, 이 사슬을 지배하는 자가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

국가가 번영하면, 식단의 서구화와 더불어 육류와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대하게 된다. 증가하는 가공식품과 육류 및 바이오 연료의 수요 때문에, **기초식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 들면 정치권력에 의해 국가간 식량교역이 통제되고 세계 식량가격은 더욱 더 상승하게 된다.

이 책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힘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식량가격 폭등으로 심한 식량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기초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들에게 무역 자유화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일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1986-1994) 동안 주요 유럽국가, 미국과 캐나다는 곡물자급률이 모두 100%를 넘었다. WTO 자유무역협정보다 앞선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가격 저하는 수입제한이 없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 공유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잉여 기초식량을 저렴한 공산품과, 커피와 코코아와 같이 그들이 재배할 수 없는 농산품으로 교환하고 싶어한

다.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기초식량 가격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후진국들은 기초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수출용 농산품을 생산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서구적' 모델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분업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책에서 언급한 **가나**는 경제성장을 위해 카카오 생산을 늘리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포기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출용 카카오 생산에 주력하였다. 이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발전은 정체되고 농촌 지역의 소득은 낮고 식량 자급률은 낮아져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WTO하의 무역 자유화는 세계식량분배를 더욱 양극화했다.

제 2장에서는, 광우병 사태를 설명한다. 광우병 사태는 **신중하지 못하고 빠르게 체결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에 기인한다. 이 협정은 미국산 육류의 무조건적인 수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운동에 의해 개선된 협정이 체결되었고 육류수입은 다수의 공급업자로 분산되었다. 그리고 육류소비 또한 감소하였다. 이철호교수는 이러한 발의(initiative)의 평화적 성격과, 국민들의 발의(initiative)가 대규모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던 순간 한국인들이 보여주었던 자기훈련(self-discipline)을 강조했다. **광우병 사태는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농산물 공급회사(Monsanto, Dupont, Syngenta)의 독점은 경제적 종속과 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단일재배와 기후변화의 조합으로 인해 **대규모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생기고 특정 지역의 식량 안보가 위협에 빠진다.

마지막 장인 6장 "2030년 식량전쟁"은 허구적 요소 (심지어는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가상)으로 인해 책의 나머지 부분과 약간의 단절을 보여준다. 식량보유가 권력의 남용과 강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장에서 분명하게 논의되었다. 세계시민의식, 결속 및 비정통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만 해결책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제시되었다.

바로 이러한 해결책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철호 교수의 주장은 옳다.

이 책은 기후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 하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 실제적인(actual)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Cherl-Ho Lee studied agricultural chemistry at Korea University and served as an ROCT artillery officer. In 1970, he was selected to study in Denmark with the support of the Danish government (the DANIDA program), after six years he received a ph.D. in food science from

the Roy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University. He worked as a researcher for four years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before being invited back to Korea University as a professor in its Department of Food Technology. In 2010, he retired after thirty years in teaching to found the Korea Food Security Research Foundation, where has been working to alert the public to the coming world food crisis and educate people in preparation for it. His honors include the Pomegranate Medal for Civil Merit and the Red Stripes Medal given by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membership as a Fellow of the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n the United States. He has written over twenty books, including *Food Orchestra*, *White Paper on Food Hygiene Cases*, and *Introduction to Korean Food Science*, as well as over 270 research papers.

Cherl-Ho Lee: *Food war 2030* Bold predictions for the decades ahead! The trigger that will hasten the end of capitalism? ISBN 978-89-967826-4-3 Translation: Colin A. Mouat Anamdong, Korea. 2013, 241 pag.

=====

글쓴이 마를리스 판 마르세베인은 (네덜란드의) 바거닝언 대학(Wageningen UR)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였다 (1975-1981). 그녀는 프랑스 제스(Gers)의 농부였으며, 이후 비영리단체들의 재정분과에서 일하였다

<http://aardeboerconsument.nl/boekbespreking-food-war-2030-een-waarschuwing>